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6300 / 팩스: 723-6055

초안하 호텔 PSPD, 나우라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정책실 : 723-5051)

제 목 정치권의 전·노 전직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날 짜 1997. 9. 1. (총 1쪽)

전·노사면, 사법정의 유린·국민기만 책동

정치권의 전·노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한 논평

.....

오늘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잇따른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 주장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지금까지의 국민적 성과와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언사이다. 우리는 여·야 정당의 두 후보가 과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야 할 차기 대통령 후보로써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은 진정한 과거청산으로부터 사회정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로 말미암아 불의와 부정, 폭력이 얼룩졌던 우리 현대사는 비로서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은 법의 올바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진정한 과거청산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과거청산은 잘못된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비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이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깊은 반성의 빛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용서와 화해' 운운하며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알팍한 정치논리에 다름아니며, 과거청산의 순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용서와 사면은 오직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보수세력과 영남지역의 득표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이를 끝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세력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거센 반대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